

세계 관광 동향

제93호 (2010년 10월 둘째 주)

연구기획조정실·관광지식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환경보존에 관한 글로벌 골격협정 체결의 좋은 기회 (IATA)..... 2

영국의 공연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 (영국관광청)..... 3

신유럽관광정책과 유럽문화유산 관광의 역할 (Travel Daily news)..... 5

[주요행사]

- International Summit on LogIn Tourism: New Decade, New Tourism
Buyeo, Republic of Korea, 13 - 14, October, 2010

- 1ª 'Feria Virtual de Emprendimientos Turísticos Comunitarios del Lago Titicaca'
Bolivia, 14 - 15, October, 2010
- <http://feriatiticaca.planetahuellas.org/>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환경보존에 관한 글로벌 골격협정 체결의 좋은 기회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제37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각국 정부에게 국제적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를 위한 글로벌 골격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총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항공기 배출가스를 국제적으로 관리할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항공사, 공항, 항공항법서비스제공자, 항공기제작업체, 기타 국제항공 관련자들은 항공기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야심찬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려면 각국 정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골격협정을 체결을 통하여 이와같은 노력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지오바니 비시그나니(Giovanni Bisignani)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장이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말했다.

항공업계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합의하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1) 2020년까지 연료 효율성을 매년 1.5% 개선 (2) 2020년부터 총배출량을 탄소중립(carbon-neutral) 수준으로 제한 (3) 2050년 탄소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수준으로 달성

“지금까지 항공업계처럼 야심에 찬 목표를 제시한 산업은 없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까지 타 산업분야들이 추구해야할 역할 모델로 항공산업을 추켜세웠습니다.” 라고 비시그나니 회장이 말했다.

비시그나니 회장은 국제적인 합의가 더욱 잘 이뤄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소 및 절차 : UN기후변화협약(UNFCCC) 크리스티나 피구에레스(Christina Figueres) 사무총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배출가스에 관한 국제적 포럼이며, 이 곳에서 채택된 그 어떤 협정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논의되는 항공기 이외의 이슈들에 관한 각국 입장에 여하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수요까지 포함하여 글로벌 협정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음 감소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골격협정에는 개도국들을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목표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장 : 항공업계가 마련한 글로벌 차원의 해결책은 항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항공기 배출을 감소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기술, 효율적 인프라, 효율적 운항, 항공산업에 호의적인 국제적 정책공조 등의 4대 투자전략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커다란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골격협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비시그나니 회장이 말했다. 그는 이미 중요한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희망해 왔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에 항공산업도 포함되게 되었다는 소식은, 각국 정부들이 항공기 배출가스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만일 이번에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면, 다음 기회는 2013년에나 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갈등과 중복된 조치들로 항공업계의 고민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일방적 배출권 거래제를 밀어붙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비시그나니 회장이 말했다.

“그 어떤 정부나 산업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된다면 항공업계가 국제적으로 기반삼고 있는 글로벌 표준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각국 정부간의 조세협력 및 양자관계가 붕괴되고, 주권문제(sovcreignty issue)에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비시그나니 회장이 말했다.

“3천 200만명의 생활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이 글로벌 항공산업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들은 항공산업이 앞으로도 안전, 안보, 효율성 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앓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각국 정부들이 항공과 환경에 관한 책임있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9월 30일 이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다룰 예정에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 8일에 있을 총회에서 보고 될 예정이다.

출처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http://www.iata.org/pressroom/pr/Pages/2010-09-29-01.aspx>, 2010.09.29

영국의 공연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 (영국관광청)

최근 영국관광청(VisitBritain)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00만 명 이상의 해외관광객들이 극장관람을 포함한 영국 관광에 소비한 액수가 28억 파운드에 달했다.

300만명 영국관광객들 중 10% 가량이 런던에서 셰익스피어 고전극을 감상하거나, 에딘버러에서 실험적 프린지(experimental fringe) 공연장을 찾거나, 웨일즈의 오페라와 런던의 뮤지컬을 감상했다.

공연문화의 으뜸 지역은 런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런던을 방문하여 극장관람을 포함한 관광에 소비한 액수가 19억 파운드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23만 5천명의 해외관광객들이 사우스이스트(South-East) 지역의 공연장을 찾았다. 로웨스트프트(Lowestoft)의 수상극장(Marina Theatre)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의 동부지역에도 공연관람을 위해 13만 3천여 명의 해외관광객이 방문했다.

글래스고우의 씨어터로얄(Theatre Royal)과 에딘버러의 국제적 페스티벌 등이 있는 스코틀랜드에는 약 12만 명의 해외관광객들이 다녀갔다. 맨체스터에 소재한 로얄익스체인지(Royal Exchange) 극장이 있는 노스웨스트잉글랜드에는 8만 5천명이 다녀갔다. 카디프에 소재한 밀레니엄센터가 있는 웨일(Welsh) 극장에는 3만명이 방문했으며, 데리지역에 소재한 밀레니엄 포럼(Millennium Forum)이 있는 북아일랜드에도 1만 5천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2009년 지역별 극장 방문 해외 관광객 수 (단위 : 명)

영국 전체	런던	노스이스트	노스웨스트	요크셔	웨스트 미들랜즈	이스트 미들랜즈
	2,200,000	12,300	85,400	40,000	66,000	31,000
3,100,000	이스트 어브 잉글랜드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133,000	106,000	235,000	20,000	30,000	15,000

런던의 상황

- 영국관광청 발표 런던 상세 통계자료(런던 극장방문 해외관광객)

2009년 40여개의 웨스트엔드(West End) 극장에서의 대규모 무대공연과 교외의 수십여 개의

작은 공연장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무대 공연 분야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아 보인다. 특히 휴가관광객 및 55세 이상의 중년관광객들 중에서 무대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비즈니스 관광객 감소 부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하고 있는 몇 가지 긍정적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가 넘는 극장 관광객들이 휴가를 이용해 방문하고 있으며, 이런 그룹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 가장 극장공연을 열성적으로 찾고 있는 55세 이상의 중년 관광객들의 숫자가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의 하락으로 극장관람 등의 밤 문화를 즐기는 데 더욱 여유가 생겼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영국의 파운드화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 미국 달러 대비 20% 하락
 - 유럽 대비 22% 하락
 - 호주 달러 대비 28% 하락
 - 스웨덴 크로나 대비 17% 하락
 - 노르웨이 크로네 대비 18% 하락
 - 덴마크 크로네 대비 18% 하락

영국관광청의 자료에 따르면 무대공연 산업은 관광산업에 있어 숨겨진 기회(hidden opportunity)가 되고 있다. 극장관람이 해외 관광객들이 영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단지 13%의 관광객들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49% 가량의 관광객들은 공연 1~2일 전에 예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영국의 극장을 방문해 본 관광객들은 다른 관광객들에게 영국을 휴가기간 동안 방문해 볼 것을 더욱 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관광객들이 영국 극장의 매력을 접하기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입소문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수단의 발전으로, 영국의 극장이 아주 좋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더욱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관광청의 자료는 극장업체가 55세 이상의 관객들만을 만족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의 극장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41% 정도는 25~44세까지의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극장관람을 가장 좋아하는 층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관람을 한 해외관광객들 중 55%가 여성이다. 극장을 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며, 이들은 대부분 남성 파트너를 동반한다.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대 공연은 뮤지컬로써 44%가 선택하고 있으며, 25%의 관광객들은 연극을 선호했으며, 3%의 관광객들이 발레를 선택했고 1%의 관광객들은 오페라를 선택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극장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의 상당수는 영어를 잘하는 관광객들이므로 나타났다. 해외 관광객 6명 중 1명이 미국인들이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순으로 극장을 많이 방문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관광객들에게는 뮤지컬이 특히 인기 있었다. 심각한 극장 무대를 좋아하는 것은 북유럽, 아시아, 라틴쪽 사람들이었다.

영국관광청의 샌디다워(Sandie Dawe) 사장은, “영국의 극장산업은 대단합니다. 빌리엘리엇트(Billy Elliot)나 맘미아 같은 멋진 뮤지컬이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페라, 아니면 우

아한 발레든지간에 여러분은 항상 세계최고의 공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던 환
을 하락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연관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국관광청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극장들이 영국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있는 러브유케이(LoveUK)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영국에서 맛 볼
수 있는 문화적 매력에 관한 국제적 토론장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영국관광청은 해외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영국을 방문하고 영국의 극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 웨스트엔드 극장가 등의 공연과 이벤트 티켓 구매는 리전트 1가에 있는 영국런던
관광안내센터(BLVC)의 앙코르티켓(www.encoretickets.co.uk)에서 표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Visit Britain(영국관광청),

<http://www.visitbritain.org/mediaroom/pressreleases/overseasvisitorstheatre.aspx>, 2010.09.23

신유럽관광정책과 유럽문화유산 관광의 역할 (Travel Daily news)

2010년 9월 27일은 올 해의 유럽관광의 날(European Tourism Day)이다. 유럽관광의 날을 맞
이하여, “신유럽관광정책 속에서 유럽문화유산 관광의 역할” 이 강조되었다. 앞으로 벨기에 브
뤼셀에서 개최될 유럽관광회의에서 각국 장관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전유럽 문화관광(cross-European cultural itineraries)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계획은 관광객들
이 몇 군데 관광지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계절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럽인들이 유럽의 공통된 문화유산을 재발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
련해 줄 것이다.

아래의 요약된 사항들은 앞으로 제시될 문화관광 일정과 논의될 주요 주제들에 관한 것이다.

유럽의회 문화관광 일정

문화관광 일정(Cultural Routes) 프로그램은 1987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가 처음
시작하였다. 처음의 의도는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하는 여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시적으로 각
국들이 어떻게 유럽이라는 공통된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유럽유산 인증 라벨

유럽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대한 소속감과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 3월 9일 유럽유산 인증라벨(European
Heritage Label)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유럽의 통합을 가져오는 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적지에 유럽유산(European Heritage) 인증라벨을 부여하는 것이다.

철의장막 유적관광

철의장막(iron Curtain) 자전거 여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절을 더
듬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거의 반세기 동안 유럽사회는 바렌츠해(Barents Sea)로부터 흑해
(Black Sea)에 이르는 철의장막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 소속의 20개국의 국경을 따라 7000km 이상 펼쳐진 관광여행 속에는 다양한 유럽의 문화, 역사,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철의장막 코스는 유럽의회로부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모델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이 코스가 이동성 편리하고 유럽 통일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오딧세이

오딧세이 프로젝트는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항구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이들 항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중해 및 인근 지역의 관광서비스를 겸하고 있다.

포에니 루트

포에니루트(Phoenician Route)는 기원전 12세기전부터 포에니 사람들이 여행하던 해상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를 따라 포에니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냈으며, 공동체를 일컫는 코이네(Koine)라는 지중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 여정에는 3대륙에 걸쳐 18개 국가들과 포에니와 관련 있는 80여개의 마을들이 걸쳐있다. 포에니 루트 여정은 지중해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리브 나무 루트

평화, 우정, 복지 등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올리브나무루트(Olive Tree Route) 여정은 메시나에서 그리스와 지중해연안지역을 잇는 올리브 생산국들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 여러 민족들간의 문화적 교류와 올리브나무를 둘러싼 역사와 문화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비아 프렌치제나

비아 프렌치제나(Via Francigena) 영국의 캔터베리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으로 과거 수천의 성지순례자들이 다녔던 길이다.

비아 프렌치제나 과거 시게릭(Sigeric)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황 요한15세를 만나 서임식용 제의(investiture pallium)를 수령하기 위해 로마까지 갔던 길이다. 역사적으로 시게릭 대주교는 여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로 인해 주요 지점들에 대한 고증이 가증해졌으며 가장 중요한 성지순례길 중 하나가 생겨날 수 있었다. 이 여정은 여행을 하면 죄를 사함 받는 다는 세 가지 성지순례길 중 하나이다.

성 마틴 투어

성 마틴은 자신의 여행 중에 외투를 거지에게 나눠줬던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전세계적인 나눔의 상징이 되고 있다. 성 마틴투어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을 잇는 장장 450km의 여정으로 성 마틴의 유적이 남아 있는 유럽의 도시와 마을들을 잇고 있다. 이 여정은 성마틴과 관련하여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유산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

알안달루시아 루트

알안달루시아(Al-Andalus)는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어인이 점령한 스페인 남부지역의 지명이다. 무어인들은 철학, 과학, 예술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스페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안달루시아 루트에는 알메리아, 말라가, 카디즈, 세르빌, 코르도바, 하엔, 그라나다 등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여행루트는 유럽 문명을 형성한 종교간 교류의 역사적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 야고보로

성 야고보(St. James)로는 스페인 북부 성 야고보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산티아고 드 캄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성당으로 가는 순례길이다. 성 야고보로는 100곳이 넘는 유럽 전역에서 이 곳으로 오는 중세시절 순례길 전체를 일컫는다.

이곳 역시 순례를 하면 죄를 사함 받는다는 3대 순례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순례지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성지순례기간 중 성지순례자들은 새로운 관습, 언어, 삶의 방식 등을 체득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 희귀한 지식들을 전파했다. 산티아고 루트는 유럽 문화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Travel Daily News,

http://www.traveldailynews.com/pages/show_page/39134-The-role-of-European-Heritage-and-cultural-itineraries-in-the-renewed-European-tourism-policy, 2010.09.29